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

국민연금,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보험료 미납시 별도 신청없이 연체금 면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기간은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가입자 경우에는 기존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달 31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수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현장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성수기간 중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과일 입고현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명절 농산물 수요 증가 대비

전북농협, 추석 대비 APC 방역 · 농산물 수급 현황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달 31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수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현장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성수기간 중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과일 입고현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전북농협은 6일부터 본격적인 출하되는 사과, 배 등의 입고 및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수기간 중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청과 함께 전북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도청 온라인몰 거시거점터에서 사과·배 제철농산물 기획전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을 세밀하게 챙겨달라"며 "코로나로 인해 농업인, 소비자 등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임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사명감을 갖고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비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사과, 배 등 과수 이외에도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 대비 공급량을 확대해 계획하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약 3주간을 식품안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순창장류 2업체 백년소공인 선정

순창전통민속고추장 원조김점례고추장 등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모집하는 2021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에 순창장류 소공인 2업체 '순창전통민속고추장(대표 김점례)', '원조김점례하마니고추장(대표 박은경)'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순창전통민속고추장(업력 24년)은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있는 전통 장류 제조업체로, 전통방식으로 고추장, 된장, 궁국장, 절임류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농협 계약재배를 통한 국산 견고추, 콩 등을 사용하고 순창전통고추장의 맛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기능인 인정받은 1대에서 2대 아들(대표 김점현)이 가업을 이어 3대 아들, 딸을 가업승계자로 지정해 제조법 전수 중에 있다.

선정된 다른 업체 원조김점례하마니고추장(업력 35년)은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있는 전통 장류 제조업체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기농 장류 제품 개발 및 다양한 국산 원료 활용 기술 도입으로 대한민국 발효 식품 인지도 향상에 기여 중에 있다. /김윤성 기자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최대 10%할인 특별판매

중기부, 오늘부터 17일까지 농협 포함 시중은행 16곳서 구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일부터 17일까지 약 10주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9%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며, 이번 추석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이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생산·출하·소비 '증가세' ... 7월 전북산업 동향

7월 전북산업은 생산, 출하, 소비 등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재고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광공업 생산은 91.8% 식료품(4.5% ↓), 금속가공(-17.3% ↓), 음료(-17.7% ↓) 등은 감소한 반면, 1차금속(88.6% ↑), 기계장비(37.9% ↑), 전기·가스업(22.8% ↑) 순으로 생산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 출하는 88.9로 광공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1차금속, 기계장비, 전

기·가스업등에서 늘어 지난해 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7.9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도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 기타상품, 가전제품, 신발·가방, 음식료품 등은 늘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0.3% 증가했다. 하지만 광공업 재고는 107.5로 지난해보다 무려 27.2% 감소세를 보였다. 음료, 종이제품,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49.0% ↓), 식료품(-22.3% ↓), 1차금속(21.9% ↓) 등에서 크게 줄었다. /김윤성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1-1728호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개최목적**
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9. 15(수) 14:00 ~ 15:30
나. 장 소 : 군산시 예술의전당(소공연장)
- 3.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개요**
가. 목표 년도 : 2040년(기준년도 2018년) / 계획인구 : 290,000명
나. 공간적범위 : 군산시 행정구역 전역(A=952km², 재만금사업지역 285km² 포함)
다. 내용적범위 : 도시미래상,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인구 및 주요지표, 부문별 계획 등
- 4. 공청회 참여 : 대면 및 비대면 시행 (시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비대면 참여 :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검색창에 '군산시' 검색
- 5. 코로나 19 관련 회의 참석 시 준수사항**
가.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가래,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이내 해외 방문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참석 불가
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거 회의장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 6. 의견 제출**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청회 이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9. 30일(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까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 군산시장

국산 포도 '스텔라' 올 첫 시장행

샤인머스켓과 당도 비슷... 내일 남원서 현장 평가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달걀 모양에 독특한 향을 지닌 국산 포도 '스텔라' 품종이 올해 처음 시장에 유통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스텔라' 품종의 빠른 보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충남 전북농업기술원과 함께 '신 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통해 재배 과정을 검토해 왔다. 이 사업이 결실을 맺어 '스텔라' 포도 2~3톤 가량이 이번에 소비자들과 만난다. 별을 뜻하는 '스텔라'는 3~4품종이 주도하는 국산 포도 시장에서 별처럼 빛나는 품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붙였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품종을 선호하는 최근 포도 소비 경향에 맞는 품종으로 포도 알 모양이 달걀형으로 독특하고 체리와 비슷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당도는 18.5브릭스(Bx)로 청포도 샤인머스켓과 비슷하고 산 함량은 0.44%로 다른 품종보다 약간 높아 새콤달콤하다. 농진청은 '스텔라'의 첫 출하를 앞두고 판매 전략 등을 세우기 위해 2일, 남원의 포도 재배 농가에



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농업인파 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평가회에서는 '스텔라' 품종의 열매 특성과 재배할 때 유의점 등을 공유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박정관 과장은 "독특한 향과 모양을 지닌 포도 스텔라가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 A 농가는 "스텔라는 당도가 높고 겹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바이오전통원 한국식품업 농식품산업 발전 '맞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영희)은 지난달 31일 농식품산업분야 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식품 산업 분야의 인력·기술·정보자원 네트워크 교류를 실시하고 공동 연구 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도는 전통적으로 농식품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도정이 삼각농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내 유일의 농식품 전문기관인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국내 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의 농식품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예정"이라며 "한국식품연구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북의 농식품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농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백영희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농식품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강명범 의심되면 '1339'로